

충남역사문화연구원·국립한글박물관 공동기획전

한글

마음을  
적다

Hangeul: Words from the heart

2025. 3. 27.  
~7.6.

충남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

충남역사문화연구원  
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

국립한글박물관  
National Hangeul Museu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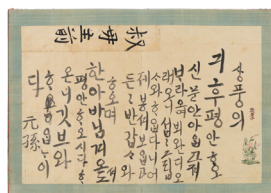
## 한글로 적은 가족의 정

### 《정조어필한글편지첩》

正祖御筆帖

18세기 | 23.6×34.8cm

보물 | 국립한글박물관 소장



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큰외숙모인 여흥 민씨(흥낙인의 처)에게 보낸 편지 등을 모아 만든 편지첩 가운데 어린 시절 정조가 작성한 한글 편지이다. 이 편지첩에는 정조가 원손(元孫)이었을 때부터 즉위 후 22년까지의 글씨와 편지 16점이 수록되어 있으며, 연령대에 따른 정조의 한글 필체의 변화를 볼 수 있다.

## 덕온공주의 나날

### 덕온공주 당의

德溫公主 唐衣

1837년 | 앞길이 71cm, 뒷길이 71cm, 화장 69cm, 진동 17cm

국립민속유산 |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



덕온공주가 혼례를 올린 해인 1837년에 직접 입었던 당의이다. 자주색 겹감에 수(壽)·복(福) 무늬를 금사로 직조하였다. 덕온공주의 손녀 윤백영(尹伯榮)이 7세 때 이 당의를 줄여 입고 고종을 만나기 위하여 입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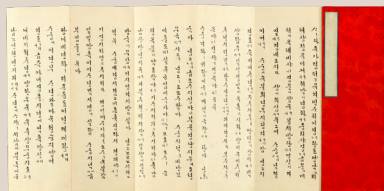
## 한글로 적은 효성

### 《자경전기》

慈慶殿記

19세기 | 32.0×528.0cm

국립한글박물관 소장



덕온공주가 어머니 순원왕후의 명으로, 아버지 순조의 『자경전기(慈慶殿記)』에 토를 달아 한글로 옮겨 쓰고 이어서 번역문을 적은 글이다. 자경(慈慶)은 자전(慈殿, 임금의 어머니)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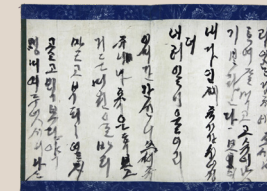
## 한글로 적은 가족 이야기

### 《선비유언》

先妣遺言

1855년 | 25.0×36.5cm

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(임창선 기탁)



한말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전재(全齋) 임헌회(任憲晦)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며 남긴 글이다. 어머니가 병환 중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을 임헌회가 교정 및 정서하여 정리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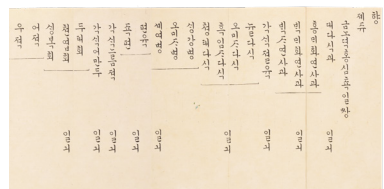
## 한글로 적은 그림

### 〈망전단자〉

望奠單子

19세기 | 33.7×160.6cm

국립한글박물관 소장



순원왕후가 막내딸 덕온공주의 제사에 보낸 음식 목록이다. ‘밤다식(栗茶食)’, ‘오미자다식(五味子茶食)’ 등 음식 단자에 적힌 가지각색의 화려한 상차림을 통해 순원왕후가 딸이 생전 좋아했을 떡과 과자를 제사에 손수 챙겨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.

## 한글 편지 체험



1. 체험하고 싶은 한글 편지를 고릅니다.
2. 한글 편지 아래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합니다.
3. 옛 한글 편지가 현대어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.